

# 시기별 사료로 보는 낙랑군의 위치

-낙랑군 교치설 비판-

이덕일\*

1. 들어가는 글
2. 313년 낙랑군 교치설의 원 저자는 이마니시 류(今西龍)
3. 313년 낙랑군 교치설 근거 사료 검토
4. 낙랑군에 대한 시기별 중국 사료
5. 서진(西晉)의 『태강지리지』와 『진서』 「지리지」가 말하는 낙랑군의 위치
6. 나가는 길

## 1. 들어가기

강단 식민사학계는 지금의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313년 지금의 요서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이른바 교치설(僑置說)을 주장하고 있다.<sup>1)</sup> 그간 강단 식민사학계는 고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이병도의 비정에 따라서 “고조선의 중심지역은 서북해안지대인 대동강 유역(평양)”<sup>2)</sup>이라고 인식해왔다. 이병도는 같은 책에서 서기전 109년 “한나라 수군이 지금이 산둥반도로부터 바다를 건너 열수(지금의 대동강)로 들어와 왕험성을 치다가……한(漢)은 위씨 조선 땅에 본주민의 국가를 말살시키고 자국의 군현제를 실시하여 원(原:Proper) 조선에는 낙랑군”<sup>3)</sup>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병도는 「위씨조선(衛氏朝鮮) 흥망고」에서도 “왕험성의 위치가 지금의 평양인 것을 알 수 있다”<sup>4)</sup>라고 단정했다. 이병도의 논리에 따르면 단군조선의 도읍지인 평양에 위만조선의 도

---

\* 바른역사학술원장

1) 공석구, 「낙랑군의 위치와 갈석산」, 『요서지역 조사와 현장 토론회 자료집』, 2016, 동북아역사재단, 69쪽.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0년, 59쪽.

2) 이병도, 『조선사대관』, 동지사, 檀紀 4281년, 20쪽. 1948년(단기 4281)까지만 해도 이병도도 단기를 사용했다.

3) 이병도, 『조선사대관』, 동지사, 檀紀 4281년, 30쪽.

4) 이병도, 『수정판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4, 91쪽 및 69쪽 지도.

읍지가 들어섰고, 그 자리에 낙랑군이 들어섰다는 것이다.<sup>5)</sup> 그러나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지금의 평양이라는 주장은 낙랑군에 대한 당대의 기초 사료인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의해 부정된다. 『한서』 「지리지」는 ‘낙랑군’ 조선현은 기자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세운 것이고,<sup>6)</sup> 위만조선의 도읍지 왕험성 자리에는 ‘요동군’ 협독현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 협독현’조를 보자.

요동군 협독현; 응소(應劭)가,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물이 험한 데 의지했으므로 협독(險瀆)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신찬(臣瓚)은 ‘왕험성(王險城)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다, 이로부터 협독이라고 했다’고 했다. 안사고(顔師古)는 ‘신찬의 설이 옳다’고 했다(『한서』 「지리지」 요동군 협독현)<sup>7)</sup>

한나라의 정사인 『한서』 「지리지」는 위만 조선의 도읍지였던 왕험성에는 ‘요동군 협독현을 세웠고, 기자조선의 도읍지에는 낙랑군 조선현을 세웠다는 것인데, 요동군의 인구는 5만 5972호(戶)에 27만 2539명(名)이고<sup>8)</sup>, 낙랑군의 인구는 6만2812 호(戶)에 46만6748명이라고 말하고 있다.<sup>9)</sup>

요동군 협독현에 주석을 단 응소(應劭)는 생물연대가 뚜렷하지 않지만 중평(中平) 6년(서기 184)에 태산태수(泰山太守)를 역임한 인물<sup>10)</sup>이므로 강단 식민사학계의 위치비정에 따르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을 때 생존했던 학자이자 관료이다. 신찬(臣瓚)은 생물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유송(劉宋:420~479) 때 그 존재가 알려진 서진(西晉:265~316) 사람이다.<sup>11)</sup> 2세기 후반의 응소(應劭)는 요동군 협독현이 위만조선의 도읍지에 세웠다고 말했고, 신찬은 위만조선의 도읍인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고 말했다. 강단 식민사학계의 논리에 따르면 313년에 생존해 있던 신찬은 왕험성이 패수의 동쪽에 있다고 말했고, 여기에 당나라 때의 역사학자 안사고(顔

5) 이병도는 기자조선 대신에 한(韓)씨조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도읍지는 역시 평양이라고 보고 있다.

6) 『漢書』, 「地理志」 樂浪郡 朝鮮縣, “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7) 『漢書』, 「地理志」 遼東郡, “險瀆縣〔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浪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8) 『漢書』, 「地理志」, 遼東郡, 秦置, 屬幽州. 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 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

9) 『漢書』, 「地理志」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應劭曰, ‘故朝鮮國也’ 師古曰, ‘樂音洛, 浪音狼’〕,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有雲鄣. 縣二十五, 朝鮮〔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10) 『三國志』, 「魏書」 曹操紀 1.

11) 裴駰撰, 「史記集解序」, “『한서음의』에 신찬이라고 칭한 자는 씨성을 알지 못한다(『漢書音義』稱臣瓚者, 莫知氏姓)” 유송(劉宋)은 고대의 남송인데, 서기 420년~479년까지 존속했던 남북조 시기 남쪽을 차지했던 왕조다.

師古:581~645)도 동의했다.<sup>12)</sup>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현재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한국 강단 식민사학계가 서기전 108년부터 313년까지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는데, 그곳은 위만조선의 도읍지인 왕험성 자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장 기초 사료인 『한서』 「지리지」는 낙랑군 조선현은 기자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것이고, 요동군 함독현이 위만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왕험성=함독현’의 위치는 낙랑군 패수의 동쪽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단 식민사학계의 주장대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면 위만조선의 왕험성은 그 동쪽인 강원도나 함경남도 등지가 되어야 하고, 패수라는 강의 동쪽에 있으려면 패수는 남북으로 흘러야 하는데, 강원도나 함경남도에는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을뿐더러 이 지역을 ‘요동군’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역사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낙랑군=대동강 유역설’이 아직도 지속되는 이유는 이 이론이 역사이론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도그마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 강단 식민사학계가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선전을 일종의 도그마로 만들어 지금껏 유지해 온 결과 하나의 학설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교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료 독점이 큰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중화민국 중앙연구원의 ‘한적전자문헌자료고(漢籍電子文獻資料庫)’ 등의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사기(史記)』부터 『청사고(淸史稿)』까지 중국 25사 원문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교치설(僑置說)’이라는 것이다. 교치설은 간단하게 말해서 평양일대에 있던 낙랑군이 313년에 요서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설이다. 중국 사료에 낙랑군의 위치가 평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다는 사료가 계속 쏟아지니까 기존의 평양설과 새로운 하북성설을 절충시켜서 서기전 108년부터 서기 313년까지는 평양일대에 있다가 서기 313년에 요서지역으로 이주했다는 학설을 내놓은 것이다.<sup>13)</sup>

12) 응소는 왕험성의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었다고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기』, 『한서』 주석자들이 앞의 견해가 다를 경우 ‘비아(非也:틀렸다)’라고 쓴다는 점에서 응소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응소 역시 신찬 및 안사고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13) 공석구, 「낙랑군의 위치와 갈석산」, 『요서지역 조사와 현장 토론회 자료집』, 2016, 동북아역사재단, 69쪽. 여기에서 공석구는 “낙랑군은 313년에 요서지역으로 옮겨갔다”고 명시했다.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0년, 59쪽. 여기에서 노태돈은 “313년 평양의 낙랑군이 소멸된 후, 낙랑·대방군 등은 요서 지방에 이치되었다.”라고 썼다.

## 2. 313년 낙랑군 교치설의 원 저자는 이마니시 류(今西龍)

먼저 313년 낙랑군 교치설은 새로운 학설이 아니다. 강단 식민사학계의 대부분의 주장이 그렇듯이 이 역시 대한제국 강점 초기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논리를 새로운 논리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는 1910년 대한제국 강점 직후부터 총독부 내에 취조국(取調局)을 설치해 구관제도조사사업(舊慣制度調査事業)과 고적(古蹟)조사사업을 전개했다<sup>14)</sup> 1910년 설치된 총독부 취조국이 조선사편수회의 모태로서 이때 많은 사료들을 수집해 불태우거나 일본으로 가져갔고, 고적 조사라는 명목으로 대동강 남쪽을 낙랑군 조선현 지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16년 1월에는 구관조사사업을 중추원 산하로 이관하고 중추원 산하에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사업에 나서 켜었다.<sup>15)</sup> 『조선반도사』란 이름에는 이미 한국사의 강역에서 대륙과 해양을 삭제해 반도 내로 국한시키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단군을 부인해 한국사의 시간을 축소시켰다. 『조선반도사』 편찬 사업은 “상고·삼한, 삼국·신라통일” 등을 탈고한 채 1922년 12월에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찬위원회로 넘어갔고, 1925년 6월에는 일왕의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선사편수회로 개편하면서 조선총독 직속의 독립관청으로 승격시켰다. 조선사편수회를 독립관청으로 승격시킨 데서 한국사를 전반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왜곡시키려 했던 일제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조선반도사』의 ‘상고·삼한’ 부분은 국내 강단 식민사학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조선총독부의 이마니시 류(今西龍)이 썼는데, 해당 내용을 보자.

「당시(4세기초) 요동에 모용씨(慕容氏)가 흥기(興起)해 고구려를 압박하여 고구려의 남진 기세를 제어하고 있어 잔존할 수 있었다. 당시 대방·낙랑의 잔민(殘民)은 대동강 남쪽(아마 봉산 [鳳山] 부근) 지방에 요동의 장통(張統)이라는 자를 수령으로 반(半)독립국을 세웠으며, 장통은 대방 태수(帶方太守)라고 칭하며, 고구려의 미천왕과 계속 교전하였는데,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였다(『조선반도사』)」<sup>16)</sup>

이마니시 류는 『조선반도사』에서 3세기 후반 고구려가 일어나면서 한반

14) 『風俗調査計劃』, 「2. 舊慣, 制度, 風俗 등 조사 경과 개요(大正 15년(1926) 1월 22일)」, 『중추원조사자료』에서 인용.

15) 중추원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장신,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를 참조할 수 있다.

16) 『조선반도사』제1편, 「상고·삼한」 ‘개설’. 연도미상, 미국 하와이대학 해밀턴도서관 소장, 여기서는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V-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152쪽에서 재인용.

도 서북부의 낙랑군은 대동강 북쪽 대부분의 강역을 잃고 6개 현만 남아서 대동강 남쪽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sup>17)</sup> 대동강이 무슨 천혜의 험강이라도 되는 듯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낙랑군이 서로 대치했다는 희한한 주장이다. 낙랑군이 대동강 남쪽으로 퇴각했으면 본국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뜻인데, 본국과 연결이 끊어진 군현들이 북쪽의 고구려, 남쪽의 백제와 대치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마니시 류 역시 이런 논리가 비역사적,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랑·대방군은) 그 이름은 진(晋)나라의 군현이었으나 실제로는 토호(土豪)의 나라로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sup>18)</sup>고 주장했다. 역사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려니 온갖 기묘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마니시 류의 ‘상상으로 쓰는 역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구려 15대 미천왕(재위 300~331)이 왜 대동강 남쪽 ‘토호의 나라’를 두 눈 뜨고 구경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그래서 이마니시 류는, “당시(4세기 초) 요동에 모용씨(慕容氏)가 흥기해 고구려를 압박하여 고구려의 남진기세를 제어하고 있어 (낙랑·대방군이) 잔존할 수 있었다”<sup>19)</sup>고 주장했다. 요동에 모용씨가 흥기한 것이 고구려의 남진을 막았다는 것이다. 요동에 모용씨가 흥기해서 고구려의 서진(西進)을 제어했다면 말이 된다. 요동에 모용씨가 흥기한 것이 어떻게 고구려의 남진(南進)을 제어하겠는가? 요동에 모용씨가 흥기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잠시 서진을 멈추고 남쪽 ‘토호의 나라’를 멸망시켰다면 말이 될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결론에 맞추기 위해 ‘상상으로 쓰는 역사’를 하려다보니 나오는 주장들이다.

### 3. 313년 낙랑군 교치설 근거 사료 검토

조선총독부의 이마니시 류가 주창한 313년 낙랑군 교치설을 『조선반도사』에서 살펴보자.

건흥(建興) 원년(313) (장통이)그 땅을 버리고 그 백성 천여 가(家)를 이끌고 모용씨에게 귀속하여 요동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지리적 호칭으로서 낙랑·대방이라는 이름은 조선 반도에 남았고, 요동에는 두 군의 교치(僑治)가 있어 정치적 호칭은 남았으나 조선 반도에서 한(漢)나라 군현이라는 그림자는 이로써 완전히 사라졌다. 실로 사군(四郡)을 설치한 지 422년이 흐른 후였다(『조선반도사』)<sup>20)</sup>

17) 『조선반도사』제1편, 「상고·삼한」, 152쪽.

18) 『조선반도사』제1편, 「상고·삼한」, 152쪽.

19) 『조선반도사』제1편, 「상고·삼한」, 152쪽.

서진(西晉) 민제(愍帝)의 연호인 건흥 원년(313년) 장통이 모용씨에게 귀순했다는 것이다. 이마니시 류는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장통이 모용씨에게 귀속되었다는 사료는 『사기(史記)』·『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삼국지(三國志)』 등 중국의 고대 4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사기』부터 『청사고』까지 25사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북송(北宋)의 사마 광(司馬光:1019~1086)이 1065년~1084년에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나온다.

요동사람 장통(張統)이 낙랑, 대방 2군을 근거로 고구려 을불리(미천왕)와 서로 공격했는데, 해를 계속해도 해결하지 못했다. 낙랑사람 왕준(王遵)이 장통을 설득해서 그 백성 1천여 가(家)를 거느리고 모용외에게 귀부하자 모용외가 낙랑군을 설치하고, 장통을 낙랑태수로 삼고, 왕준을 참군사(參軍事)로 삼았다.(『자치통감(資治通鑑)』 「권88」 진기(晉紀 10)<sup>21)</sup>

『자치통감』의 이 기사가 대동강 남쪽에 있던 낙랑군이 요서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이른바 ‘교치설’의 모든 근거다. 그럼 먼저 이 사료를 교치설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이 사료는 ‘장통은 요동사람 [遼東張統]’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동 사람 장통이 요동이 아니라 대동강 남쪽으로 왔다는 사료는 전혀 없다. 이 무렵 낙랑군은 대동강 남쪽에 있었다는 ‘전제 조건’ 아래 아전인수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이 사료는 요동사람 장통이 고구려 미천왕(을불리)과 싸우다 패해서 도주했다는 기사다. 이마니시 류는 이때 낙랑군은 대동강 남쪽으로 쫓겨 간 상태니 몇 해 동안 전투를 했다면 전투 현장은 대동강 남쪽이 되어 한다. 고구려가 대동강을 도강해야 전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대동강을 건너서 해를 넘기도록 장통과 전투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전투에서 패배한 장통은 “그 백성 1천여가 [其民千餘家]”를 데리고 도주했다. 그 ‘군사 [其軍] 1천여 명’이 아니라 ‘그 백성 1천여가’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가(家), 즉 한 호(戶)를 6~7명 정도로 잡으면 모두 ‘6~7천여 명’의 낙랑군 사람들이 도주한 것이다. 이중 절반인 3천~3천5백 명 정도는 여성일 것이다. 남성들이 전쟁으로 많이 죽었다고 볼 경우 여성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 나머지 3천~3

20) 『조선반도사』제1편, 「상고·삼한」 ‘개설’. 연도미상, 미국 하와이대학 해밀튼도서관 소장, 여기서는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152~153쪽쪽에서 재인용.

21)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連年不解。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虜，虜為之置樂浪郡，以統為太守，遵參軍事。(『資治通鑑』「卷 88 晉紀 10」)

천5백여 명의 남성들 중에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빼면 전투 가능 인구는 많이 잡아야 ‘2천~2천5백여 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고구려와 싸우다 패배해서 도주하는 처지에 언제 배를 만들어서 대동강을 건너고, 또 2천~2천5백여 명의 군사가 그 두 배에 가까운 5천 명 가량의 여성과 노약자를 데리고 고구려 강역 수천 리를 뚫고 요동의 모용씨에게 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장통의 군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강군이었다면 애당초 대동강 남쪽으로 쫓겨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치통감』의 이 사료는 당초부턴 요동에 있던 장통이 요동에서 미천왕과 싸우다 더 동쪽이나 북쪽의 모용외에게 도주한 사실을 전해 주는 사료이다.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료가 대동강 남쪽에 있던 낙랑군이 요동으로 교치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게다가 창려(昌黎) 극성(棘城) 출신의 모용외(慕容廆:269~333)는 전연(前燕)의 임금으로 즉위하지도 못하고, 동진(東晉)으로부터 요동군공(遼東郡公)으로 책봉 받는데 그쳤다. 모용외가 동진(東晉) 함화(咸和) 8년 사망하자 동진은 모용외에게 대장군(大將軍),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추증했고, 양(襄)이란 시호를 내렸다.<sup>22)</sup> 전연을 개창한 그 아들 모용황(慕容皝)이 함강(咸康) 3년(337)에야 연왕을 자칭하고 그 부친에게 무선왕(武宣王)이란 시호를 추증했다. 요동사람 장통이 거느리고 간 1천 가구를 낙랑군으로 삼아줄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기술했듯이 낙랑군의 인구는 6만 2812 호, 46만6748명이었는데, 6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1천여가구가 이주한 것을 낙랑군이 이주한 것으로 보는 것도 건강부회다. 장통이 대동강 남쪽의 낙랑군을 들어서 요동의 모용외에게 갔다는 것은 ‘상상으로 쓴 역사’에 불과하다.

강단 식민사학계는 대방군은 314년에 요동으로 이주했다는 것인데, 고구려 미천왕이 장통 도주 뒤에도 1년씩이나 대방군을 내버려두었다는 사실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313년 낙랑군 교치설은 당시의 상황 및 관련 사료를 검토해보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4. 낙랑군에 대한 시기별 중국 사료

그럼 313년 낙랑군 교치설을 중국의 각종 사료로 살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고조선 및 낙랑군 관련 사료를 시비별로 살펴보자. 중국 고대 사료 중에 서기 313년 이전에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 또는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22) 『자치통감(資治通鑑)』 권95, 함화(咸和) 8년조. 이 사료는 “여름 5월 갑인일에, 요동 선무공 모용외가 죽었다(夏, 五月, 甲寅, 遼東武宣公慕容廆卒)”고 기록하고 있다.

설명하는 사료가 있는 지 살펴보자. 먼저 고조선 도읍지 자리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주장이므로 중국 고대 사료가 말하는 고조선 강역을 대략 비정해보자.

### (1) 전국시대 및 한나라 초기의 기록- 『산해경(山海經)』 「해내경(海內經)」 및 「해내북경(海內北經)」

먼저 『산해경(山海經)』에 나오는 조선의 위치를 찾아보자. 『산해경』의 작자에 대해서는 우(禹)임금이나 백익(伯益)<sup>23)</sup>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 『산해경』을 연구하는 중국 학자들은 이 책이 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략 전국(戰國)시대 초기부터 한(漢)나라 초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산해경은 고조선이 중국 연나라와 다투던 전국 시기부터 조한(朝漢)전쟁을 치렀던 한나라 때까지 만들어진 책이므로 조선의 위치에 대한 1차사료라고 볼 수 있다. 『산해경』은 「해내경(海內經)」과 「해내북경(海內北經)」에 조선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①동해 안쪽, 북해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이다(『산해경』 「해내경(海內經)」)<sup>24)</sup>

②조선은 열양(列陽)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이다. 열양은 연나라에 속해있다(『산해경』 「해내북경(海內北經)」)<sup>25)</sup>

「해내경」에서 말하는 동해란 산둥성, 강소성 등지에 접한 바다이며, 북해란 발해를 뜻한다. 「해내북경」에서 말하는 열양은 열수의 북쪽이다.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이 열수를 대동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이 중국의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에까지 실려 있다.<sup>26)</sup> 그러나 『산해경』에 주석을 단 곽박(郭璞:276~324)은 “열은 강의 이름이다. 열수는 요동에 있다(郭璞注, 『山海經曰』, “列, 水名. 列水在遼東”)”라고 말했고, 이는 『후한서』 「군국지」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sup>27)</sup> 『중문대사전』이 열수를 한국 대동강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식민사학의 폐해가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고 있는지

23) 백익(伯益)은 성(姓)은 영(嬴)이고 씨(氏)는 조(趙), 이름이 익(益)이다(『상서(尙書)』, 『사기(史記)』), 고대 영(嬴) 성의 각 종족의 조상으로서, 춘추 전국 시대 진국(秦國)과 조국(趙國)의 조상이다. 우임금을 도와서 치수 사업에 공을 세웠다(『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하(下))

24) 『山海經』 「海內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名曰朝鮮”

25) 『山海經』, 「海內北經」,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26) 列陽, 古地名. 列水, 即今韓國大同江北部地方, 屬燕國. 《山海經·海內北經》: 「朝鮮, 在列陽東海北山南, 列陽屬燕」(『中文大辭典』)

27) 『後漢書』 「郡國志 幽州 樂浪郡」, “樂浪郡: 朝鮮…沮水…占蟬, 遂城…帶方…列口〔郭璞注山海經曰, ‘列, 水名. 列水在遼東’〕, 長岑…樂都



잘 말해주는 사례다. 고조선은 고대 요동에 있는 열수 동쪽에 있었는데, 바다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이다. 열양을 대동강 북쪽 지역이라고 보면 그 동쪽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대동강 동쪽은 강원도나 함경남도로서 이곳을 바다의 북쪽으로 볼 수도 없고, 산의 남쪽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지역을 지금의 북경 부근에 있었던 연나라에 속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2)한사군 설치 직전의 기록-『회남자(淮南子)』

한(漢) 고조 유방(劉邦)의 손자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서기전 179~서기전 122)은 『회남자(淮南子)』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위; 동방의 끝, 갈석산으로부터 (고)조선을 지나 대인(大人)의 나라를 통과하여…… [『회남자(淮南子)』 「시측훈(時則訓)」] 28)

한사군 설치 14년 전까지 생존했던 회남왕 유안은 갈석산을 지나면 조선이라고 말했다. 위만조선과 한나라가 갈등을 겪던 시기의 국경선, 즉 조한전쟁(朝漢戰爭) 직전 전한과 위만조선의 국경이 갈석산이었다는 뜻이다. 현재 갈석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하북성 창려현의 갈석산설, 산둥성 무체현 갈석산설, 하북성 또는 산서성 설 등 여러 주장이 있고<sup>29)</sup>, 강단 식민사학계 일부에서는 아직도 갈석산이 있는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에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현재는 많이 수그러진 상태다. 갈석산에 대한 여러 비정 중에서 중국측에 가장 유리한 지점이 하북성 창려현 갈석산설이니 이것으로 『회남자』의 기록을 해석하면 하북성 창려현 동쪽이 고조선이다.

## (3)한사군 설치 직후의 기록-『한서(漢書)』 「가연지(賈捐之)열전」

가연지(賈捐之:~서기전 43)는 전한 낙양(洛陽) 사람이다. 그는 한(漢)나라 초원(初元) 3년(서기전 46) 한 원제(元帝)가 가연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애군(珠崖郡)을 폐지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주애군(珠崖郡)은 중국에서 지금의 해남성(海南省) 일부로서 군치(郡治)는 지금의 해남성 해구시(海口市) 경산구(瓊山區) 용당진(龍塘鎮)으로 비정하고 있다. 한 원제가 가연지의 건의로 주애군을 폐지시켰다는 것은 그가 당대의 역사지리에 밝은 학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서』, 「가연지 열전」에서 가연지는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 이렇

28) 『淮南子』, 「時則訓」, “五位：東方之極，自碣石山過朝鮮，貫大人之國”

29) 심백강 박사는 전국시대의 갈석산을 하북성 남쪽 역현(易縣)과 서수현(徐水縣) 부근으로 보고 있다. 하북성 창려현 갈석산은 계석산(揭石山)이라는 것이다. 『미래로 가는 바른고대사』 1, (사)유라시안 네트워크, 2016년, 60~61쪽. 고구려 역사저널의 성현식 편집인은 갈석산을 산서성 남쪽으로 본다.

게 말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여러 나라와 연대하여 안식(安息)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써 군을 삼았습니다.(『한서』, 「가연지 열전」)<sup>30)</sup>

역사지리에 능했으며 상서령(尙書令) 역임했던 가연지의 역사 지리 인식과 회남왕 유안(劉晏)의 역사지리 인식이 비슷함을 볼 수 있다. 유안이 조선이라고 본 곳을 가연지는 현도, 낙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연지가 한사군 설치 60여년 후에 본 낙랑군은 갈석산에서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사기』 및 『괄지지』에서 말하는 조선과 평양의 위치

『사기』 「시황(始皇) 본기」 26년조는 “진나라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바다(海)에 이르러 조선에 닿았다 [海暨朝鮮]”<sup>31)</sup>라고 말하고 있다. 당나라 측 천무후(재위 690~705) 때 생존했던 장수절(張守節)은 『사기 정의(正義)』에서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주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海)는 발해의 남쪽에서 양주(揚州), 소주(蘇州), 태주(台州) 등지에 이르는 동해(東海)이다. 기(暨)는 급(及:미치다)이란 뜻이다. 동북(東北)이 조선국(朝鮮國)이다. 「괄지지(括地志)」에는 ‘고려(高麗:고구려)는 평양성(平壤城)에서 다스렸는데 본래 한(漢)의 낙랑군(樂浪郡) 왕험성(王險城)으로서 곧 옛 조선(朝鮮)이다’라고 했다.<sup>32)</sup>

진나라의 영토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러 조선에 닿았는데, 장수절은 그 바다가 발해의 남쪽에서 양주·소주·태주 등지의 중국 동해라는 것이다. 이 위치 비정에 따르면 고조선은 지금의 산둥반도 정도가 된다. 또한 『괄지지(括地志)』는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이 원래 한나라 낙랑군 왕험성(王險城)이라고 말하고 있다. 『괄지지』는 당나라 태종의 둘째 아들인 이태(李泰:620~653)가 편찬한 역사지리서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양성이 지금의 북한 평양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후한서』 「동이열전 동옥저」 조에는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의

30) 『漢書』「賈捐之 列傳」, “西連諸國至于安息, 東過碣石以玄菟、樂浪為郡”

31) 『史記』「始皇 本紀」, “海暨朝鮮.”

32) 『史記』「始皇 本紀」, “海暨朝鮮.”의 『史記正義』 주석, “海謂渤海南至揚、蘇、台等州之東海也。暨, 及也。東北 朝鮮 國。括地志云:「高麗治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即古 朝鮮也。」”

동쪽에 있다”<sup>33)</sup>면서 그 주석에서는 “개마(蓋馬)는 현(縣) 이름인데, 현도군에 속해 있다. 그 산은 지금의 평양성 서쪽에 있는데, 평양은 곧 왕험성이다”<sup>34)</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의 평양성 서쪽에 개마산이라고 불릴만한 산이 없음은 물론이다. 『한서』 「지리지」는 현도군 산하 ‘서개마 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개마 현에는 마자수(馬訾水)가 서북으로 흘러서 염난수(鹽難水)로 들어가다가 서남쪽으로 흘러서 서안평(西安平) 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두 개의 군(郡)을 지나는데 2천 1백리를 간다. 왕망은 현도정(玄菟亭)이라고 말했다.<sup>35)</sup>

『한서』 및 『후한서』는 평양성 서쪽에 개마산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현을 개마산이라고 부르는데, 마자수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자수는 서북쪽으로 흘러 염난수로 들어갔다가 서남으로 흘러 서안평 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두 개의 군을 지나는데 모두 2천1백리를 흐른다는 것이다. 지금의 평양성 서쪽에는 개마산도 없고, 대동강 이외에 마자수로 비정할 수 있는 강이 없다. 대동강은 평양 서쪽에서 발원하는 강이 아닐뿐더러 2천1백리를 흐르지도 않고, 두 개의 군을 지나지도 않는다. 염난수란 한때 바다였다는 뜻인데, 한반도 내에는 이런 강을 찾을 수가 없다. 즉, 『후한서』에서 말하는 ‘평양=왕험성’ 역시 지금의 평양성이 아니다.

#### (5) 『후한서』 본문과 주석에서 말하는 낙랑군의 위치

『후한서』에는 왕조(王調)라는 인물에 대한 기사에서 낙랑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료가 나온다. 『후한서』 「광무제(光武帝) 본기」 건무(建武) 6년(서기 30년)조에 이런 기사가 있다.

처음에 낙랑인(樂浪人) 왕조(王調)가 낙랑군을 근거로 복종하지 않았다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가을 낙랑태수 왕준(王遵)이 이를 공격하자 낙랑군의 관리들이 왕조를 죽이고 항복했다(『후한서』 「광무제본기」 건무 6년)<sup>36)</sup>

33) 『後漢書』 「東夷 列傳 東沃沮」, “東沃沮在高句驪蓋馬大山之東”

34) 『後漢書』 「東夷 列傳 東沃沮」 주석, “蓋馬, 縣名, 屬玄菟郡。其山在今平壤城西。平壤即王險城也”

35) 『漢書』 「지리지 현도군 서개마 현」조,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莽曰玄菟亭”

36) 『後漢書』 「光武帝本紀 建武 6년 조」, “初, 樂浪人王調據郡不服〔樂浪郡, 故朝鮮國也。在遼東〕秋, 遣樂浪太守王遵擊之, 郡吏殺調降。”

이 사료는 서기 30년에 발생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낙랑군 왕조가 낙랑군을 근거로 후한 낙랑태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낙랑태수 왕준이 이를 공격하자 낙랑군의 관리들이 왕조를 죽이고 항복했다는 사료다. 그런데 이 주석에서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후한서』 「최인(崔駰)열전」도 마찬가지다. 최인(崔駰: ?~92)은 탁군 안평현 사람인데, 열세 살 때 『시경(詩經)』·『주역(周易)』·『춘추(春秋)』 등에 능통해서 “박학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고금의 훈고(訓詁) 백가의 말에 다 능통했다”는 말을 들었던 인물인데, 『삼국지』에 따르면 촉한(蜀漢)의 관리였다가, 서진(西晉)의 관리가 되는 극정(郤正)이 최인의 문장을 이어받았다고 말하고 있다.<sup>37)</sup> 최인은 거기장군 두헌(竇憲: ?~92)에게 종사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후한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거기장군) 두헌(竇憲)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교만방자하니 최인이 여러 차례 간쟁했다. 흉노를 공격하러 나가서 길에서 불법을 더욱 많이 저질렀다. 최인이 주부(主簿)로서 앞뒤에 걸쳐 기록해서 상주(上奏)하기 수십 차례였다. 그 장단점을 지적하니 두헌이 포용하지 못하고 점점 멀게 대했다. 배인이 고제(高弟: 우등 합격)라는 것을 살펴서 알고 장잠(長岑)현의 장(長: 현령)으로 내보냈다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최인은 스스로 멀리 떠나서 뜻을 얻지 못하자 드디어 취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영원(永元) 4년(92), 집에서 죽었다. (『후한서』 「최인 열전」)<sup>38)</sup>

『후한서』 「최인 열전」은 낙랑군 장잠현이 요동에 있다고 주석하고 있다. 『후한서』 「군국지(郡國志)」 ‘유주(幽州) 낙랑군(樂浪郡)’조에 장잠현이 어딘지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낙랑군: 조선(朝鮮)현……패수(溟水)현…점제(占蟬)현, 수성(遂城)현……대방(帶方)현… 열구(列口)현 [곽박이 산해경에 주석하기를 “열은 강의 이름이다. 열수는 요동에 있다”고 했다], 장잠(長岑)현, 둔유(屯有)현, 소명(昭明)현……낙도(樂都)현(『후한서』 「군국지 유주 낙랑군」)<sup>39)</sup>

37) 『삼국지(三國志)』 「촉서(蜀書)」, 극정(郤正) 열전, ‘其文繼於崔駰達旨’

38) 『後漢書』 「崔駰 列傳」, “憲擅權驕恣, 駰數諫之。及出擊匈奴, 道路愈多不法, 駰為主簿, 前後奏記數十, 指切長短。憲不能容, 稍疎之, 因察駰高弟, 出為長岑長〔長岑縣, 屬樂浪郡, 其地在遼東〕 駰自以遠去, 不得意, 遂不之官而歸, 永元四年, 卒于家。”

39) 『後漢書』 「郡國志 幽州 樂浪郡」, “樂浪郡: 朝鮮…溟水…占蟬, 遂城…帶方…列口〔郭璞注山海經曰,

『후한서』 「군국지 유주 낙랑군」 조는 조선현을 필두로 낙랑군 산하의 열여덟 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sup>40)</sup> 해명(海冥)현→열구(列口)현→장잠(長岑)현→둔유(屯有)현 순서로 쓰고 있다. 이중 장잠현과 이웃인 열구현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곽박(郭璞:276~324)은 『산해경』 주석에서 “열(列)은 강이름이다. 열수는 요동에 있다”<sup>41)</sup>라고 말하고 있다. 열구현은 열수의 입구에 있어서 생긴 이름인데, 열수가 요동에 있으므로 열구현도, 장잠현도 모두 고대 요동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병도는 곽박이 『산해경』에서 “열수는 요동에 있다”고 주석한 것은 못 본 채하고, 열수는 대동강이라고 주장했다.<sup>42)</sup> 그러면서 『산해경』 「해내북경(海內北經)」에 대한 곽박의 주석만을 인용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산해경』 「해내북경」은 “조선은 열양 동쪽에 있는데, 바다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이다. 열양은 연나라에 속해있다 [朝鮮在列陽東，海北山南，列陽屬燕]”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곽박은 이렇게 주석했다.

“조선은 지금의 낙랑의 현인데, 기사(箕子)를 봉한 곳이다. 열수는 강 이름이다. 지금 대방(帶方)에 있는데 대방에는 열구(列口)현이 있다”<sup>43)</sup>

곽박 당시에는 열수가 대방군에 속해 있었으며, 열구도 대방군 소속이라는 뜻이다. 곽박(郭璞:276~324) 생존 시에 조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고, 열구현은 대방군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병도는 이렇게 설명했다.

“곽씨의 주석을 기다릴 것도 없이 열양(列陽)은 열구(列口)와 한 가지, 열수(지금의 대동강)와 관계있는 지명으로 열구가 열수의 하구의 뜻임에 대하여 열양은 열수의 북이란 뜻으로 명명된 것이다……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임은 기지(既知)의 사실이니 곽씨가 열수를 ‘금채대방(今在帶方)’이라고 한 것은, 열수의 하류 일부가 당시의 대방 경내인 지금의 황해도 서북계를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sup>44)</sup>

‘列，水名。列水在遼東’], 長岑…樂都

40) 『후한서』 「군국지」의 유주(幽州) 낙랑군(樂浪郡) 산하 18현에 대한 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朝鮮·誚郡·涓水·含資·占蟬·遂城·增地·帶方·駟望·海冥·列口〔郭璞注山海經曰：「列，水名。列水在遼東」〕·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彌·樂都”

41) 『後漢書』 「군국지」 낙랑군 열구현의 주석, “郭璞注 山海經 曰, “列, 水名。列水在遼東”

42) 이병도, 「위씨조선 흥망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72쪽, 1976.

43) 『산해경』 「해내북경」의 “朝鮮在列陽東海北山南列陽屬燕”에 대한 곽박의 주석, “朝鮮今樂浪縣，箕子所封也。列亦水名也。今在帶方帶方有列口縣。”

44) 이병도, 「위씨조선 흥망고」, 『수정판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4, 72쪽.

이병도는 열수가 어떤 사료에 의해 지금의 대동강이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기지(既知:이미 아는 것)의 사실’이란 비학문적 근거로 논리를 전개한다. 이병도의 말대로 열양이 열수 북쪽이고, 열수가 대동강이라면 연나라가 대동강까지 차지했다는 회한한 주장이다. 또한 “열수는 요동에 있다”는 광박의 주석은 못 본 채하면서 열수가 대동강이라는 것은 기지(既知)의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대방을 황해도로 전제하고 하위 논리를 펴는 것이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방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한 두 가지 사료만 살펴보자. 『한서』 「지리지」는 낙랑군 함자(含資)현에 대해서 “대수(帶水)가 서쪽으로 대방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sup>45)</sup>라고 말하고 있고, 낙랑군 탄열(呑列)현에 대해서는 “분려산(分黎山)은 열수가 나오는 곳인데, 서쪽으로 점제(黏蟬)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820리를 흐른다”<sup>46)</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병도의 말대로 열수의 하류 일부가 대방 경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수가 서쪽으로 대방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낙랑군 탄열현에 분려산이 있는데 그곳이 열수의 수원지라는 것이다. 대동강은 낭림산맥의 동백산(東白山)과 소백산(小白山)에서 발원하는데, 이 지역은 함경남도 장진군(동백산), 평안남도 영원군(소백산) 지역에 있다.<sup>47)</sup> 이병도는 대동강의 발원지를 열수의 발원지로 곡해해서 탄열현을 “열수의 상류처인 지금의 영원군 및 그 부근 일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sup>48)</sup>라고 말했다. 『위서(魏書)』 「지형지(地形志) 요서군」 조에는 “(요서군은) 진(秦)나라에서 설치했다”면서 세 개 현을 거느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비여(肥如)현, 양락(陽樂)현, 해양(海陽)현이다.<sup>49)</sup> 이중 양락(陽樂)현에 대해서는 “전한·후한 및 진(晉)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진군(眞君) 7년(446) 영지현을 병합해서 함자현에 속하게 했다”<sup>50)</sup>고 말하고 있다. 낙랑군 함자현에 대수가 흐르는데, 영지현을 병합한 함자현이 요서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 들어도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 일대가 아니라 지금의 요서 지역에 있었음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45) 『漢書』 「地理志」 낙랑군 함자현, “帶水西至帶方入海”

46) 『漢書』 「地理志」 낙랑군 탄열현, “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行八百二十里”

4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1:250,000 대한민국 지세도』, 58쪽(소백산), 59쪽(동백산)

48) 이병도, 「위씨조선 흥망고」, 『수정판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4, 151쪽.

49) 『위서(魏書)』 「지형지(地形志) 요서군 비여현」조, “秦置, 領縣三”

50) 『위서(魏書)』 「지형지(地形志) 요서군 양락현」조, “二漢、晉屬, 眞君七年併令支含資屬焉。有武歷山、覆舟山、林榆山、太真山”

## 5. 서진(西晉)의 『태강지리지』와 『진서』 「지리지」가 말하는 낙랑군의 위치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료는 『태강지리지』다. 당나라 사마정(司馬貞:679~732)은 『사기』 「하 본기」의 주석 『색은(索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에서 말하기를,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사기』 「하 본기 주석」)<sup>51)</sup>

이는 사마정 때만 해도 『태강지리지』가 전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데, 『태강지리지』에는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 ‘①수성현 ②갈석산 ③만리장성의 기점’이란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지리, 유적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낙랑군 지역이다. 이 기술 때문에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대한 견강부회가 후대에 일어났는데, 조선총독부의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는 「진 장성 동쪽 끝 및 왕험성에 관한 논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에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이라고 주장했다.

진(秦) 장성(長城)의 동단(東端)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遂安)의 강역(境)에서 기(起)하여……개원 동북 지역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한서』 「지리지 [漢志]」에 의해서 의심할 바 없다.(이나바 이와기치, 「진 장성 동쪽 끝 및 왕험성에 관한 논고」)<sup>52)</sup>

이나바 이와기치는 『한서』 「지리지」를 근거로 진 장성의 동단이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말했지만 『한서』 「지리지」는 황해도 수안은커녕 한반도에 대한 기술 자체가 없다. 학문이 아니라 사기다. 문제는 이런 사기술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계승한 국내 강단사학자들에 의해 지금까지도 통용된다는 점이다. 이나바 이와기치의 ‘낙랑군 수성현=황해도 수안군’설은 이병도로 이어지는데 그 논리를 살펴보자.

(낙랑군) 수성현(遂城縣)…… 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遂安)에 비정하고 싶다. 수안에는 승람 산천조에 요동산(遼東山)이란 산명이 보이고, 관방조(關防條)에 후대 소축(所築)의 성이지만 방원진(防垣鎭)의 동서행성의 석성(石城:고산자 [古山子:김정호]의 대동

51) 『史記』, 「夏本紀」 주석, “太康地理志云, ‘樂浪遂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52)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사학잡지(史學雜誌)』第21篇 第2號, 41쪽.

지지 [大東地志] 에는 이를 패강장성 [滸江長城] 의 유지 [遺址] 라고 하였다)이 있고, 또 진지(晉志)의 이 수성현조에는-맹랑한 설이지만-「진대장성지소기(秦代長城之所起;진나라 때 장성이 시작된 곳)」라는 기재도 있다. 이 진장성설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 요동산이란 명칭과 어떠한 장성지(長城址)가 있어서 그러한 부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릇된 기사에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 까닭이다(이병도, 「낙랑군고」)<sup>53)</sup>

이병도는 이나바 이와기치라는 이름은 듣지 않고 마치 자신의 학설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나바 이와기치의 학설(?)을 베낀 것이다. ‘낙랑군 수성현=황해도 수안군설’이 워낙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다 보니 현재 국내 강단사학계에서 이 문제를 두고 혼란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고 47억원을 들여서 제작했던 『동북아역사지도』는 국회 동북아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으로 비정하면서 위의 이병도의 낙랑군 수성현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제출했다.<sup>54)</sup> 이 코미디 같은 주장을 근거로 중국 동북공정에 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고 47억원을 낭비한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교수 노태돈은,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까지 진이 장성을 축조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할 때, 낙랑군 수성현설은 인정하기 어렵다”<sup>55)</sup>고 주장했지만 ‘낙랑군=한반도 서북부설’은 계속 유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태돈 교수의 논리를 살펴보자.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설은 진(晉)대에서 새로이 생긴 것이다. 그 뒤 낙랑군이 요서 및 하북지역으로 이치됨에 따라 수성현설이 이치된 지역에 부화되었으며, 그것은 요서설과도 혼합되는 면을 보였다. 요서설은 북제·북주 및 수의 장성이 갈석에 이르러 요서의 해안에 도달하였다는 실제 장성 수축 사실과 깊이 결부되어 유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설은 모두 후대의 산물이다. 진 장성의 동단은 『사기』·『한서』의 기록과 현전하는 장성 유지를 통해 볼 때 요동설이 타당하다.

이렇듯 진 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면, 진·한의 요동군은 지금의 요동군

53) 李丙燾, 「樂浪郡考」, 『修訂版 韓國古代史研究』, 148쪽. 이병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필자가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역사의 아침, 2009)의 80~97쪽에서 자세하게 반박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54)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진, 낙랑군 수성현=황해도 수안군,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48쪽.

55)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0년, 54쪽.



에 있었던 것이 되며, 낙랑군은 자연 그 동쪽인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 분명해진다(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역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56)

노태돈은 ‘진·한의 요동군은 지금의 요동군에 있었던 것이 되며, 낙랑군은 자연 그 동쪽인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용한 『한서』 「지리지」 요동군 협독현 조에서 신찬은 ‘왕험성(王險城:요동군 협독현)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다’고 말했고, 안사고는 이것이 옳다고 말했다.57) 요동군 서쪽에 낙랑군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노태돈은 요동군 동쪽에 낙랑군이 있다고 거꾸로 말한다. 물론 사료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추측만으로 우기는 것이다. 또한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설은 진(晉)대에서 새로이 생긴 것”이라면 없던 갈석산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솟아났는가?

노태돈은 낙랑군이 313년 요서지역으로 이치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 사료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또 노태돈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는 313년 이후에 작성된 지리지여야 할 것이다. 『태강지리지』는 진(晉)나라 태강(太康) 연간에 작성한 지리지인데, 태강은 서진(西晉)의 무제(武帝) 사마염(司馬炎)의 세 번째 연호로서 서기 280년~289년까지이다. 위(魏)나라로부터 선양의 형식으로 나라를 받아 진(晉)나라를 세운 무제가 그 전의 연호 함녕(咸寧)을 태강(太康)으로 바꾼 이유가 있다. 함녕 6년(280) 3월 오나라 손호(孫皓)가 드디어 진나라에 항복함으로써 분열의 삼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진나라는 중원 통일 기념으로 함녕이란 연호를 크게 편안하다는 뜻의 태강(太康)으로 고친 것이었다. 그리고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포괄한 전국적인 지리지를 만든 것이 『태강지리지』다.

『진서』 「지리지」는 총서(總敍)에서 “진(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원년(280) 이미 손씨(孫氏:오나라)를 평정하고 무릇 군국(郡國) 23개를 증설해서 설치했다”58)면서 23개 군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진서』 「지리지」가 『태강지리지』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뜻이다. 『진서』 「지리지」의 낙랑군 조를 살펴보자.

56)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0년, 58쪽.

57) “遼東郡，險瀆縣：臣瓚曰，‘王險城在樂浪郡浪水之東，此自是險瀆也。’師古曰，‘瓚說是也’ (『漢書』「地理志」遼東郡 險瀆縣 주석)

58) 『晉書』「地理志」總序，晉武帝太康元年，既平孫氏，凡增置郡國二十有三。

「낙랑군: [한나라에서 설치했다. 여섯 현을 관할하며 호수는 3천7백이다]. 조선현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한 지역이다], 둔유(屯有)현. 혼이(渾彌)현. 수성(遂城)현 [진(秦)나라 때 쌓은 장성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누방(鑊方)현. 사망(駟望)현(『진서』, 「지리지」, 평주 낙랑군)」<sup>59)</sup>

『태강지리지』는 서기 280년~289년까지 작성된 지리지다. 313년 이전에 작성된 지리지에서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태강지리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서』 「지리지」도 낙랑군 수성현에 “진(秦)나라 때 쌓은 만리장성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마씨의 서진(西晉:265~316)이 삼국을 통일하고 낙랑군을 평주(平州)에 소속시켰다. 그 낙랑군은 물론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을 계승한 것으로서, 설치 당시(서기전 108년)부터 『태강지리지』가 작성되던 때(280~289)까지 고대 요동에 있었다. 대동강 남쪽에 있던 낙랑군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요동사람 장통이 대동강 남쪽에 ‘토호의 나라, 낙랑군’을 거느리고 있다가 1천 가구를 데리고 모용외에게 도망갔다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다. 대동강 남쪽에서 지금의 요서지역으로 교치한 것이라는 주장 따위는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

## 6. 나가는 길

굳이 역사학자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대동강 남쪽에 있던 낙랑군이 서기 313년에 요서로 이주했다’는 이른바 교치설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일본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는 「진 장성 동쪽 끝 및 왕험성에 관한 논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에서 마쓰이(松井) 문학사(文學士)의 「진(秦) 장성(長城) 동부(東部)의 위치에 대하여」(『역사지리(歷史地理)』 13의 3호)라는 논문을 두 차례나 비판했다. 마쓰이 문학사가 진 장성이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나바 이와기치의 비판을 들어보자.

오인(吾人)은 여기에 있어서 마쓰이(松井) 문학사(文學士)의 “한대(漢代)에 있어서는 진 장성의 동단은 요동이라 여겼었는데 진대(晉代)부터 이것을 지금의 조선 서북부 변경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해설은 『사기』·『한서(史漢)』의 「조선열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전연(全

59) 『晉書』 「地理志」 平州 樂浪郡, “樂浪郡〔漢置.統縣六,戶三千七百〕:朝鮮〔周封箕子地〕,屯有,渾彌,遂城〔秦築長城之所起〕,鑊方 駟望”

燕:연나라 전성기)의 영역 및 진(秦)의 요동군의 변경 경계(邊界)를 거꾸로 잃어버린 [遺却] 경향이 있음을 재언(再言)하고자 한다(이나바 이와 기치, 「진 장성 동쪽 끝 및 왕험성에 관한 논고」)<sup>60)</sup>

마쓰이(松井)가 “한대(漢代)에 있어서는 진 장성의 동단은 요동이라 여겼었는데 진대(晉代)부터 이것을 지금의 조선 서북부 변경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여겼다”고 서술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성의 동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진나라 때 장성의 동단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경주』의 저자 역도원이 패수의 위치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꿔 인식한 것을 염두에 둔 말인데, 이 문제는 훗날 다시 거론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사료로 살펴본 결과 낙랑군은 서기 전 108년부터 조선 서북부 변경이 아니라 고대 요동 갈석산 부근에 있었다. 대동강 남쪽에 있던 낙랑군이 서기 313년 요서로 이치된 것이 아니라 낙랑군은 원래부터 고대 요동에 있었다. 이는 낙랑군의 위치에 관한 시기별 중국 사료가 말해주는 것이고, 진 장성과 갈석산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유적이 지금도 말해주는 것이다.

---

60) 稻葉岩吉,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사학잡지(史學雜誌)』第21篇 第2號, 47쪽.